

李白 <古風>五十九首 譯解(2)

徐盛ⁱ, 金慶天ⁱⁱ, 李東鄉ⁱⁱⁱ, 李基勉^{iv}, 崔宇錫^v, 趙成千^{vi}, 金貞熙^{vii}*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代馬不思越
 - 2.2 客有鶴上仙
 - 2.3 莊周夢蝴蝶
 - 2.4 齊有倜儻生
 - 2.5 黃河走東溟
 - 2.6 松柏本孤直
3. 결론

1. 서론

이백의 <古風> 59수 가운데 제6수부터 제11수까지 모두 6편을 逐句 번역하고 註釋을 달았으며, 본문에 이어서 校記, 詳釋, 解說을 붙인다. 原文은 宋蜀本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校勘은 詹鏞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참고하였다. 번역은 직역을 기본으로 하되 의미가 순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글의 언어적 질서 속에서 맥락과 의미를 살리는 의역을 보조적으로 하였다. 주석은 시적 외연을 될수록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근거와 전고는 물론 전인이 사용한 용례까지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번잡하지 않도록 하였다. 校記는 宋蜀本을 모본으로 하여 송축본에 나오는 교기를 중심으로 하였고, 흑간 후세에

* i) 열린사이버대 교수(주저자), ii) 성균관대 교수, iii)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iv) 배재대학교 교수, v) 우송대 교수, vi) 을지대 교수, vii) 한양여대 교수(교신저자).

나온 통행본의 一作을 붙인 경우도 있다. 詳釋은 시적 언어를 산문적 언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시적 언어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내었다. 解釋은 시에 대한 해제와 詩旨에 대한 역대의 주요한 의견을 덧붙여 시의 의미를 다각도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본론

제6수 代馬不思越

- 代馬不思越, 1) 대 땅의 말은 월 땅을 생각지 않고
 越禽不戀燕, 2) 월 땅의 새는 연 땅을 그리지 않네
 情性有所習, 3) 성정마다 익숙한 바가 있고
 土風固其然, 4) 풍토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네
 昔別雁門關, 5) 지난날 중원의 안문관을 작별하여

1) 代: 代國 또는 그 지역. 代나라는 춘추시대 北狄이 세운 제후국으로서 지금의 산서성 동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명마의 산지였다. 여기서서는 북방을 대표하는 말로 쓰였다. ○ 越: 越國 또는 그 지역. 越나라는 춘추전국시대의 제후국으로서 현재의 절강성 일대에 존속하였다. 여기서서는 남방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2) 燕: 燕國 또는 그 지역. 燕나라는 춘추전국시대의 제후국으로서 현재의 북경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서는 代와 함께 북방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 代馬·越禽: 王符《潛夫論·實邊》에 “대 땅의 말은 북녘을 그리고, 여우는 죽을 때 고향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代馬望北, 狐死首丘)”라는 말이 있다. 《文選·古詩十九首》에도 “오랑캐 말은 북풍을 좋아하고, 월 땅의 새는 남쪽 가지에 깃든다(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李善 注에 “모두 근본을 잊지 않음을 뜻한다(皆不忘本之謂也)”라고 하였다. 즉 이 두 구는 누구나 고향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며, 고향을 떠나서는 타향살이의 슬픔과 괴로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3) 情性: 감정과 본성.

4) 土風: 지방의 풍토 또는 풍기, 풍습.

5) 雁門關: 지금의 山西省 代縣 북쪽에 있던 만리장성의 한 요새.

今戍龍庭前.⁶⁾ 지금은 흉노의 용정 앞을 지키네
 驚砂亂海日,⁷⁾ 광풍에 놀란 모래, 사막의 해를 가리고
 飛雪迷胡天.
 바람에 날리는 눈, 변세의 하늘 흐리네
 蟣蟲生虎鬪,⁸⁾ 서캐와 이가 갑옷과 투구에 생기고
 心魂逐旌旆.⁹⁾ 마음과 혼은 깃발 따라 떠도네
 苦戰功不賞,
 힘들게 싸워도 공로에 상이 없고
 忠誠難可宣.¹⁰⁾ 충성을 다해도 드러내기 어렵네
 誰憐李飛將,¹¹⁾ 누가 가련히 여기나? '날랜 장군' 이광
 白首沒三邊.¹²⁾ 흰머리 되도록 고생하다 변방에서 마쳤네

-
- 6) 龍庭: 龍城이라고도 한다. 흉노의 왕을 이르는 單于(선우)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곳으로서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나, 일정한 장소는 아니다.
- 7) 海: 여기서는 넓은 사막을 가리킴. 본래는 사방의 매우 먼 곳을 뜻함. <荀子·王制>에 “북해에 달리는 말과 짓는 개가 있으나 중원에서 이를 데려다 길러 부린다(北海則有走馬吠犬焉, 然而中國得而畜使之)”라는 글이 있는데, 楊倞 注에서 “海는 황폐하고 극히 먼 곳의 땅을 뜻하니, 바닷물까지 갈 필요는 없다(海, 謂荒晦絕遠之地, 不必至海水)”라고 하였다.
- 8) 蟣蟲(기슬): 서캐와 이. ○ 虎鬪(호갈): 虎衣와 鬪冠. 곧 갑옷과 투구의 뜻. 鬪(갈)은 싸움 평의 일종으로 한번 싸우면 한 쪽이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성질이 있음. 장군들이 입던 갑옷과 투구에 호랑이와 싸움평이 새겨져 있었음.
- 9) 逐(축): (마음이나 생각이) 떠다니다. 방탕하다. 헤매다. <荀子·儒效>에 “《국풍》의 시가 방탕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취하여 절제를 했기 때문이다(《風》之所以爲不逐者, 取是以節之也)”라는 글이 있는데 楊倞은 이에 대하여 “축은 방탕의 뜻(逐, 流蕩也)”이라고 주석한 바가 있다. 또는 ‘逐’을 ‘쫓다(隨)’의 뜻으로도 보아, 이 구를 ‘마음과 혼은 (고생스레) 깃발만을 따라다니네’로 번역할 수 있음. ○ 旌旆(정전): ‘旌은 깃털로 장식한 깃발, 旆은 붉은 천의 깃발. 여기서는 깃발의 총칭으로 쓰였음.
- 10) 忠誠難可宣: 충성은 드러내기 어렵다. 곧 충성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 또는 ‘충성을 펴기 어렵다’, 즉 충성을 발휘하려고 하여도 남의 시기와 의심으로 제약을 받아 그럴 수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 11) 李飛將: 서한의 명장 李廣(?~119B.C.). 흉노가 이광의 용맹과 날랜을 두려워하여 ‘飛將軍’이라고 불렀다. 李陵의 조부이기도 하다. 이광은 젊어서 從軍하여 70여 차례 흉노와 싸워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60세가 넘자 늙었다는 이유로 한 무제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또 흉노와의 결전을 앞두고 공을 다투던 대장군 衛青이 그의 요청과는 다른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광은 위청의 명령대로 부대를 이끌고 먼 길을 우회하다가 길을 잃어 전투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장군 위청의 문책을 받게 되자 이광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결하였다.
- 12) 三邊: 幽州, 并州, 涼州. 곧 중국의 정북, 동북, 서북 지역으로 흉노와의 접경지대.

< 校記 >

제1구의 '代'는 '岱'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 詳釋 >

북방 대(代) 땅에서 나는 말은 남방의 월(越) 땅을 동경하지 않고, 남쪽 월(越) 땅에 사는 새는 북쪽 연(燕) 땅을 그리워하지 않듯이, 사람들은 모두 고향에 머물고 싶어 하고 부득이하게 떠나게 되면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감정과 본성은 모두 평소 익숙한 대상을 편히 여기고, 또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풍토가 본래부터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수들은 지난날 젊은 시절에 중원의 북쪽 관문인 안문관을 나선 이후 수십 년 동안 흉노와 싸우며 전쟁터를 떠돌다가 지금도 여전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흉노의 근거지와 대치하고 있다.

전장에는 돌풍에 모래가 어지러이 날아 사막 위의 태양을 가리고, 날리는 눈발은 갈 길을 잃은 듯 이리저리 맴돌며 오랑캐 땅과 하늘을 흐린다.

오랜 전쟁에 갑옷과 투구가 낡고 또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 이와 서캐가 온몸에 들끓고, 마음과 영혼은 깃발을 따라다니며 사막 곳곳을 헤맨다.

악전고투하여 공을 세우더라도 조정으로부터 포상도 받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여도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다(또는, 공적을 시기하고 공연히 의심하여 활동을 제약하고 심지어는 사지에 몰아넣으니 이 충성된 마음 다 펴기도 어렵다).

한나라 때의 '날쌔 장군' 이광(李廣)은 공을 수없이 세우고도 머리가 하얗게 세도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전쟁터를 떠돌다가 무리한 명령을 따르지 못하여 변방에서 쓸쓸히 자결하였는데, 그러나 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또 누가 있었는가?

< 解説 >

이 시는 중원과는 풍토가 전혀 다른 북방 변경에서 적과 싸우느라 악전고투

하다가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정부의 견제를 받다가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전장에서 쓸쓸히 늙어죽는 군인을 묘사한 것이다. 다만 이백이 묘사한 대상은 '虎鶻'이나 '李飛將' 또는 '苦戰功不賞, 忠誠難可宣'과 같은 표현을 볼 때 일반 군졸이 아니라 지휘관 이상의 장수인 듯이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청말 陳沆(1785~1826)은 《詩比興箋》에서 이 시는 당나라 때 吐蕃 등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군공을 세우고도 간신 李林甫의 모함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갑자기 죽은 절도사 王忠嗣를 슬퍼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근래의 詹鍈 또한 이 설을 따라 이 시가 양충사가 사망한 천보 8년(749년, 이백 49세)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元 蕭士贇도 이 시가 '느낀 바가 있어 이를 풍유한 것'(感賦)으로 당시 어떤 의도 하에 지어진 것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논조와는 달리, 명대의 朱謙은 이 시가 당시의 변방 수비군을 위하여 지은 것으로, 이들이 인정에 맞지 않는 타향살이를 하면서 공로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대의 奚祿詒(해록이)는 당 현종의 '무력의 남용'(黷武)을 비판한 시라고 하였다.

이 시는 내용상 行役과 從軍의 고통을 읊고 있다는 면에서 羈旅行役詩에 속하며, 제재상 변경의 상황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邊塞詩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의 연원은 《詩經·邶風》의 <擊鼓>, 《王風》의 <黍離>와 <君子于役>, 《小雅》의 <出車>, 陳琳의 <飲馬長城窟行>, 鮑照의 <代出自薊北門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고시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제1구에서 제4구까지 비흥의 수법을 사용하여 주제의 표출을 돕고 있으며, 思·憐·別·驚·迷·逐·心魂·苦戰·誰憐·白首 등과 같이 감각적이거나 감성적인 언어를 대량으로 구사함으로써 작품의 강렬한 분위기와 심미성을 효과적으로 고양시키고 있다.

제7수 客有鶴上仙

客有鶴上仙, 학을 탄 신선이 있어
 飛飛凌太清.¹³⁾ 훨훨 날아 하늘 위로 오르더라
 揚言碧雲裏, 푸른 구름 속에서 소리 높여
 自道安期名.¹⁴⁾ 스스로 안기생이라 말하네
 兩兩白玉童, 쌍쌍이 뒤따르는 백옥같은 얼굴의 동자
 雙吹紫鸞笙. 나란히 생황을 불더라
 去影忽不見, 홀연히 모습은 떠나 보이지 않고
 回風送天聲. 바람 속에 천상의 소리만 들려오더라
 舉首遠望之, 머리 들어 멀리 바라보니
 飄然若流星.¹⁵⁾ 홀연히 유성처럼 사라지더라
 願餐金光草.¹⁶⁾ 원컨대 금광초를 먹고
 壽與天齊傾.¹⁷⁾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어라

13) 太清: 하늘. 도교에서 말하는 玉清, 上清, 太清의 세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

14) 安期: 安期生. 신선의 이름이다. <사기·봉선서>에 방사 李少君이 武帝에게 한 말에 안기생을 언급하였다. “신이 일찍이 바닷가에서 노닐다가 안기생을 만났습니다. 안기생이 참외만한 대추를 먹고 있었습니다. 안기생은 신선으로 봉래산을 오갔는데, 마음이 맞으면 사람에게 보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은거합니다(臣嘗遊海上, 見安期生. 安期生食巨棗, 大如瓜. 安期生, 仙者, 合則見人, 不合則隱).” 劉向의 <열선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안기 선생은 남야 부향 사람이다. 동해 바닷가에서 약을 팔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千歲翁이라고 하였다. 진시황이 동쪽으로 유람 갔을 때 만나기를 청하여 삼일 낮밤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안기생에게 수천만 전에 값하는 황금과 벽옥을 하사하였다. 안기생이 부향의 역참을 떠날 때 모두 남겨두고 갔으며, 편지와 함께 붉은 옥으로 만든 신발 한 쌍을 보답으로 남겼다. 편지에는 ‘몇 년 후 봉래산으로 나를 찾아오시오라’ 쓰여 있었다(安期先生者, 琅玕阜鄉人也. 賣藥於東海邊, 時人皆言千歲翁. 秦始皇東遊, 請見, 與語三日三夜. 賜金璧度數千萬. 出於阜鄉亭, 皆置去, 留書, 以赤玉烏一雙爲報. 曰: “後數年求我於蓬萊山).”

15) 流星: 혜성. 예기서는 유성이라 새겼다.

16) 金光草: 도교에서 신선이 먹는다는 불사의 약초. 잎은 파초와 같고 노란색의 꽃은 모습을 비출 수 있다고 한다.

17) 傾(경): 다하다. 여기서는 하늘과 더불어 끝나다.

< 校記 >

제1구의 “客有鶴上仙”은 “家有鶴上來”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9구는 다른 판본에 “我欲一問之”라고 되어 있다.

전체 시는 다른 판본에 “五鶴西北來，飛飛凌太清。仙人綠雲上，自道安期名。兩兩白玉童，雙吹紫鸞笙。飄然下倒影，倏忽無留行。遺我金光草，服之四體輕。將隨赤松去，對博坐蓬瀛”라고 되어 있다. 또 이 경우 “無留行”의 ‘行’은 ‘形’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 詳譯 >

손님 중에는 학을 타고 날아가는 신선이 있었는데, 훨훨 날아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푸른 구름 속에서 큰 소리로 “나는 안기생이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뒤로 얼굴이 백옥 같은 동자들이 나란히 뒤따르면서 자주색 난새 모양의 생황을 불고 있었다.

홀연히 안기생과 동자들이 보이지 않더니, 그들이 부는 음악만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머리 들어 멀리 사라진 쪽을 바라보니, 별들이 흘러가듯 그 모습들이 명멸하였다.

안기생이 내게 준 금광초를 먹고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구속 없이 소요하며 천지가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살고 싶다.

< 解說 >

신선 안기생을 만난 일을 그린 유선시이다. 앞 8구에서 안기생의 표연한 모습을 직접 그렸고, 말 4구는 장생에 대한 갈망을 서술하면서 전편에 신선에 대한 양모가 드러나 있다. 신선이 홀연히 사라지고 음악 소리만 바람결에 들려 온다는 이미지는 무척 아름답다. 이러한 탈속의 仙氣야말로 이백이 추구하는 인생의 또 다른 경지로 보인다. 송대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이백의 유선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태백의 <고풍>은 2권으로 묶여 있고 근 70편인데, 이 가운데 자신이 신선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작품은 이 가운데 자신이 신선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작품은 열서너 편 된다. 어떤 작품에선 부용을 들고 태청을 밟고자 하고, 어떤 작품에선 두 마리 용을 끼고 태양보다 높은 하늘에 오르려 하고, 어떤 작품에선 붉은 옥으로 만든 신발을 남겨두고 봉래산에 가려고 하고, 어떤 작품에선 약목을 꺾어 들고 팔극을 돌아다니려 하고, 어떤 작품에선 신선 왕자진과 사귀고자 하고, 어떤 작품에선 신선 위숙경을 배알하려고 하고, 어떤 작품에선 적송자에게 흰 사슴을 빌려 타고자 하고, 어떤 작품에선 안기생이 준 금광초를 먹으려 하였다. 하지장이 그를 ‘하늘에서 유배 내려온 신선(謫仙人)’으로 부른 말이 있어서 본래부터 그 말을 옳다고 여겨 이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자신이 등용되지 못한 탓에 침울하여 뜻을 얻지 못했기에 높이 날아 멀리 떠날 것을 생각한 것인가?(李太白古風兩卷近七十篇, 身欲爲神仙者, 殆十三四. 或欲把芙蓉而躡太清, 或欲挾兩龍而凌倒景, 或欲留玉鳥而上蓬山, 或欲折若木而遊八極, 或欲結交王子晉, 或欲高揖衛叔卿, 或欲借白鹿於赤松子, 或欲餐金光於安期生. 豈非因賀季貞有謫仙之目, 而固爲是以信其說耶? 抑身不用, 鬱鬱不得志, 而思高舉遠引耶)”

갈립방은 이백의 유선시가 뜻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개인적인 울분에서 나온 것이라 보았지만, 이백이 도교를 독실하게 믿은 이유는 이밖에도 다양하다. 당 종실이 노자 李珣를 조상으로 숭앙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백 역시 같은 성씨로 존중했던 점, 촉 지방의 신선 문화에 영향 받은 점, 명산과 신선을 좋아하는 성품, 정치적인 방편으로 여긴 점 등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판본의 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다섯 마리 학이 서북에서 날아오더니, 훨훨 날아 태청 위로 오르더라. 신선은 푸른 구름 위에서, 자신이 바로 안기생이라 말하네. 한 쌍씩 뒤따르는 동자는 얼굴이 백옥 같은데, 나란히 자주색 난새 모양의 생황을 불더라. 표연히 태양보다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삼시간에 머물지도 않고 사라지더라. 나에게 금광초를 주길래, 먹었더니 온몸이 가벼워라. 장차 적송자를 따라 떠나, 봉래산에서 마주 앉아 바둑을 두리라

(五鶴西北來, 飛飛凌太清. 仙人綠雲上, 自道安期名. 兩兩白玉童, 雙吹紫鸞笙. 飄然下倒影, 倏忽無留行. 遺我金光草, 服之四體輕. 將隨赤松去, 對博坐蓬瀛”.

제8수 莊周夢蝴蝶

莊周夢蝴蝶, ¹⁸⁾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蝴蝶爲莊周.	나비가 다시 장주가 되었다지
一體更變易, ¹⁹⁾	몸뚱이 하나도 다시 바뀌는데
萬事良悠悠, ²⁰⁾	세상만사 참으로 끝이 없으리
乃知蓬萊水,	봉래산 앞 바닷물도
復作清淺流, ²¹⁾	언젠가 다시 맑고 얕아질 것 알겠노라
靑門種瓜人, ²²⁾	지금 동문 밖 외 농사짓는 이

- 18) 莊周: 기원전 4세기 경 중국의 철학자. 《莊子》를 썼다. ○ 夢蝴蝶: 《장자·齊物論》에 보면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나비가 된 순간에는 너무나도 나비 같아서 자기가 장자인줄 몰랐다. 후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직도 나비의 꿈이 선명하지만 본인은 장자였다. 그래서 장자가 나비 꿈을 꾸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는 고사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 ‘蝴蝶夢’이라는 고사가 나왔다.
- 19) 一體: 여기서는 朱諫의 주석에 따라 호접몽을 꾸는 장자의 몸으로 해석하였다. 다음 구 ‘萬事’에 대응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 更變易(깡변역): ‘更’은 ‘尙(오히려)’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고, ‘變易’은 “변화하다, 바뀌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20) 良: 확실히. 틀림없이. ○ 悠悠: 가없이 넓은 모양. 《集評》에서는 “周流貌(돌고 도는 모양)”라고 하였다.
- 21) 蓬萊: 《太平廣記》 권60에서 《神仙傳》을 인용하여 “麻姑가 말하기를 지금껏 모서온 이래로 벌써 동해(황해) 바다가 세 번이나 말라서 桑田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 봉래산에 와보니 물이 전번에 만났을 때보다 반도 되지 않으니 조만간 또 육지가 되지 않겠습니까(麻姑自說云: 接待以來, 已見東海三爲桑田. 向到蓬萊, 水又淺于往者會時略半也, 豈將復還爲陸陸乎)”라 하였다.
- 22) 靑門: 한나라 때 장안성의 동남문. 푸른 칠을 했기 때문에 ‘청문’이라 하였다. 《三輔黃圖》 권1에 따르면 도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 “장안성 동남쪽에 있는 첫 번째 문이 패성문이다. 문 색깔이 청색이어서 사람들이 이를 ‘靑城門’ 또는 ‘靑門’이라 불렀다(長安城東出南頭第一門靑城門, 民見門色靑, 名曰靑城門, 或曰靑門)”한다. 阮籍은 <詠懷> 6수에서 “예전에 들었던 동릉과가 지금은 청문 밖에 있네(昔聞東陵瓜, 近在靑門外)”라 하였다. ○ 種瓜人: 오이 농사 짓는 사람. 《삼보황도》 권1에 따르면 청문 밖에는 옛날부터 좋은 오이가 생산되었다. 광릉 사람 소평은 진나라 때 동릉후였는데 진나라가 멸망하자 평민이

舊日東陵侯。	지난 날 한 때는 동릉후였으니
富貴固如此，	부귀란 원래 이러하거든
營營何所求。 ²³⁾	아등바등 무엇을 구하는가?

< 校記 >

제5구의 '乃'는 '那'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9구의 '固'는 '苟'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張愈光의 《李詩選》, 《全唐詩》본에는 '故'라고 되어 있다. '固'와 '故'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 詳釋 >

어느 날 장주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장주가 나비가 되어 이 세상 구경을 너무나도 잘 했다. 그러다가 잠을 깨었더니 다시 장주의 몸으로 돌아왔다. 장주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의 꿈을 꾸었는지 의아해하였다.

이렇듯 장자의 몸뚱이 하나도 나비가 되었다가 인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세상만사의 변화를 인간의 지력으로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봉래산 앞에는 동해라고 불리는 탁하고 넓은 바다가 있었다. 과거에는 이 동해바다의 바닷물이 점차 줄어들어 뽕나무밭이 된 적도 세 번이나 있었다. 그러니 지금 봉래산 앞에 있는 이 동해바다라고 해서 또 다시 맑고 알아지다가 뽕나무 밭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장안성 동문 밖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바로 그 옛날 남부러울 것 없

되어서 동문 밖에서 오이를 가꾸어 팔았다. 그 오이가 너무나도 달고 맛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를 '동릉과'라고 불렀다(門外舊出佳瓜。廣陵人邵平，爲秦東陵侯，秦破，爲布衣，種瓜青門外，瓜美，故時人謂之東陵瓜)。

23) 營營: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만두지 않는 모양. 여기서는 악착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양을 형용하였다. 《장자·庚桑楚》에 “그대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고 그대의 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의 생각이 이익을 탐하느라 노심초사하도록 하지 마시게(全汝形，抱汝生，勿使汝思慮營營)”라 하였다.

던 동릉후였다. 진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동릉후가 동문 밖에서 오이 농사나 지으리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는가?

인간에게 있어 부귀영화란 바로 이런 것이니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권세를 그렇게 악착같이 탐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 解說 >

《繫年》에 따르면 이 시는 천보 12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河嶽英靈集》에는 <詠懷>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남송의 謝枋得은 “이 작품은 세대가 개탄스러움을 보고서, 삶에 달관한 자의 이치를 이미 간파할 수 있다면 또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를 말한 것(此篇見世態可慨, 言既能燭破達生者之理, 則尙何所求耶)”이라고 했다. 《唐詩解》 권3에서는 “이 시는 세상의 변고가 다단한 것을 개탄하였으며, 부귀 또한 갈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인 것(此慨世之變故多端, 見富貴之不當慕也)”이라고 했다. 朱諫은 “이 시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것은 변화하기에 부귀 또한 무상한 것(此詩言古今事變, 而富貴無常)”이라고 했다. 《唐詩別裁集》 권2에서는 “장주의 몸뚱이 하나도 오히려 이렇게 변화하는데 부귀라고 하여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겠는가(言一體尙有變易, 而富貴能長保耶)”라고 했으며, 方東樹는 《昭昧詹言》 권7에서 “세상일이란 다 꿈같이 거짓된 것이니 부귀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言世事幻妄, 不必營營富貴)”라고 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바로 그 명제이리라.

제9수 齊有僞儻生

齊有僞儻生,²⁴⁾ 제나라에 기개가 드높은 사람 있었으니
魯連特高妙.²⁵⁾ 노중련이 홀로 고매하였네.

24) 僞儻(척당): 대범하여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明月出海底,²⁶⁾ 야광주가 깊은 바다 속에서 나와
 一朝開光耀. 일시에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았네.
 卻秦振英聲, 진나라 군대를 물리쳐 명성을 떨치니
 後世仰末照,²⁷⁾ 후세에도 여전히 그 여광을 우러러보네.
 意輕千金贈, 천금을 준다 해도 가벼이 여기고
 顧向平原笑,²⁸⁾ 평원군을 돌아보며 꺾꺾 웃었네.
 吾亦澹蕩人,²⁹⁾ 나 또한 담박하고 호탕한 사람이니
 拂衣可同調,³⁰⁾ 훌훌 털어버리고 그와 뜻을 같이하리라.

< 詳釋 >

齊나라는 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처음 姜太公이 봉해졌던 나라로, 뒤에는 전국시대 오패 중의 으뜸이었던 桓公이 세력을 떨치고 일어난 땅으로 걸출한

25) 魯連: 전국시대 사람 魯仲連을 가리킨다. 그에 관한 고사는 《史記》 권83 《魯仲連鄒陽列傳》 제23에 보인다. 《사기》에서는 그를 제나라 사람이라고 했으나, 그의 생졸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각국을 주유하며 분쟁을 해결하였다. 조나라 효왕9년(B.C257),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수도인 邯鄲을 포위하고 압력을 가하자 위왕은 장군 新垣衍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진나라가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를 바라니 그렇게 불러주면 진에서 기뻐할 것이라는 말을 平原君을 통해 조나라 왕에게 전하도록 했다. 노중련은 이 소문을 듣고 평원군을 알현하고 직접 신원연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청했다. 노중련은 신원연을 만나자, 역사적 사건을 들어 예의를 저버리고 권모술수로 황제가 되려는 진나라의 속셈을 간파하고 조나라와 위나라의 연합을 통해 진에 항거하게 했다. 이에 신원연은 일어나서 재배를 하고 노중련의 뜻을 따랐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진나라 군대는 퇴각했고 위나라가 조나라를 구원하자 진나라 군은 철수했다. 이에 평원군은 노중련에게 작위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중련은 사양하고 끝내 받지 않았다. 평원군은 이에 연회를 베풀고 술자리에서 그에게 천금을 받치며 장수를 기원하자, 노중련은 “천하의 선비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환난을 해결하여 주고 분쟁을 없앤 뒤에 아무런 보답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받는 것은 곧 장사꾼의 일이니, 저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所貴於天下之士者, 爲人排患釋難解紛亂而無取也. 卽有取者, 是商賈之事也. 而連不忍爲也)”라고 했다. 그리고 평원군과 작별하고 길을 떠났는데,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26) 明月: 밤에 빛을 발하는 夜明珠.

27) 末照: 餘光.

28) 平原: 《사기》 권83 《魯仲連鄒陽列傳》 제23에 보이는 조나라의 平原君을 가리킨다.

29) 澹蕩(담탕): 대범하여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욕심이 없는 것.

30) 拂衣: 옷을 훌훌 털고 분연히 일어나 쫓는 것을 의미. ○ 同調: 뜻과 취미가 서로 같은 것.

인물들이 빈번하게 배출되었다. 제나라에서는 魯仲連이 특히 고매하고 뛰어나서 지위나 재물에 구속되지 않았다.

이들테면 야광주가 깊은 바다 속에서 나왔지만 한 순간에 그 찬란한 빛을 내뿜으면 만인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노중련이 趙나라를 주유하고 있을 때, 조나라와 위나라가 연합하여 진에 항거하라는 논의를 전개하자, 이를 듣고 진나라 군대가 포위를 풀고 퇴각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로, 그 이름은 세상을 뒤흔들었고 후세까지도 그 빛을 우러러 볼 정도였다.

이와 같이 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둬 사양하며 천금도 가벼이 여겨 보답을 받지 않고, 그는 平原君을 돌아보고 웃을 뿐이었다. 선비로서 좋은 평판이 있었지만, 그는 평원군을 이별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평생을 나그네로 자유로이 떠돌며 지냈다.

나 이백도 세상의 지위나 재물을 탐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니 분연히 일어나서 노중련과 뜻을 같이 하여 이 덧없는 세상에서 자유로이 떠돌며 그의 뒤를 따르기를 바랄 뿐이다.

< 解説 >

이 시는 이백이 일생 동안 숭배한 옛 영웅 중의 한 사람인 魯仲連에 관한 일을 읊은 것이다. 노중련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환난을 해결하고 분쟁을 없앤 뒤에도 공명도 천금의 보답도 받지 않는 그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지은 시다. 후세 비평가들은 이백이 호매하여 평생 동안 권신들을 업신여기고 부와 명예를 가벼이 여겼는데, 이 시는 노중련을 사모하여 지은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시는 노중련이 공을 세우고서도 보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백이 자신을 비유하여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백은 시 가운데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청대 성령과를 대표하는 趙翼은 《甌北詩話》에서, “이백은 젊어서부터 도학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신선이 되어 속세를 초탈하려는 뜻을 두고 있어서

이러한 시가 10편 가운데 9편 정도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그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한 공명을 동경하여 그가 흠모한 사람으로는, 노중련, 후영, 역이기, 장량, 한신, 동방삭 등이 있었다. 대체로 공훈을 세우고 세상에 명성을 떨친 이후에 떨치고 일어나 산속에 은거하며 신선술을 배워 장생불사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青蓮少好學仙, 故登眞度世之志, 十詩而九。蓋出於性之所嗜, 非矯託也。然又慕功名, 所企羨者, 魯仲連、侯嬴、酈食其、張良、韓信、東方朔等總欲有所建立, 垂名於世, 然後拂衣還山, 學仙以求長生)”고 했다.

제10수 黃河走東溟

黃河走東溟,³¹⁾ 황하는 동해로 내달리고
 白日落西海,³²⁾ 백일은 서해로 떨어지네
 逝川與流光,³³⁾ 흐르는 강물과 세월
 飄忽不相待. 쏜살처럼 기다려주질 않네!
 春容捨我去,³⁴⁾ 청춘의 얼굴 날 버리고 떠났고
 秋髮已衰改.³⁵⁾ 백발로 이미 늙어 변해버렸네
 人生非寒松, 인생은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와 다를지니
 年貌豈長在. 젊은 나이와 용모가 어찌 영원할 수 있으랴!

- 31) 東溟: 東海를 가리킨다. 顏延年의 <車駕幸京口侍遊蒜山作>에 “원천산은 북방에 높이 솟아 있고, 일관봉은 동해를 마주하고 있네(元天高北列, 日觀臨東溟)”라는 전고가 있음.
 32) 西海: 여기서는 ‘서쪽’을 범칭하고 있음. 《禮記·祭義》 편에 “옮겨서 그것을 동쪽에 놓아도 들어맞고, 옮겨서 그것을 서쪽에 놓아도 들어맞다(推而放諸東海而準, 推而放諸西海而準)”라는 전고가 있음.
 33) 逝川: 흐르는 강물을 가리킴. 《論語》에 “공자님께 강가에서 말씀하시기를, ‘흐르는 것은 이와 같아, 주야로 쉬지 않는구나’라고 했다(子在川上曰, ‘逝者如斯乎! 不舍晝夜’)”라는 전고가 있다. ○ 流光: 흐르는 세월.
 34) 春容: 창창했던 청춘의 얼굴을 가리킴.
 35) 秋髮(추발): 늙어서 세어버린 白髮(백발)을 의미함.

吾當乘雲螭,³⁶⁾ 나는 장차 이룡을 타고 가
 吸景駐光彩.³⁷⁾ 달빛 햇빛 들이마시며 젊은 광채 영원히 누리리!

<校記>

제7구 “寒松”은 다른 판본에 “松柏”이라 되어 있다.

제8구 “年貌”는 다른 판본에 “顏色”이라 되어 있다.

제9구와 제10구는 “誰能學天飛, 三秀與君採”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황하는 동쪽 바다로 부단히 흘러가고, 해는 또 끊임없이 서산으로 진다.
 흘러가는 것은 무릇 이와 같을 지니, 강물이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흐르는 것과 같다.

손살같이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지니, 젊은 청춘의 얼굴은 어느새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인간은 저 눈 속에서도 사철 푸름을 간직한 소나무와 같이 영원히 젊음을 간직할 수 없다. 붉은 얼굴과 검은 머리를 어찌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구름 속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이룡을 타고 저 하늘 위에서 달빛과 햇빛을 들이마시는 신선이 되어 젊은 광채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뿐이다.

<解說>

시의 첫 두 구절에서는 빠르게 흘러가는 황하와 끊임없이 서산에 지는 해를 比興의 수법으로 사용하여 쉽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형상화 했다. 중간의 네

36) 雲螭: 용을 가리킨다. 《廣雅》에서는 “뿔이 있는 것은 구룡이라하고, 뿔이 없는 것은 이룡이라 한다(有角曰虯龍, 無角曰螭龍)”고 풀이했음. 郭璞의 <遊仙詩>其四에 “비록 신선의 세계인 단계에 오르코자 하나, 이룡은 나의 수레가 아니네(雖欲騰丹谿, 雲螭非我駕)”라는 전고가 있음.

37) 吸景(흡경): 햇빛과 달빛을 들이마시다. '景'은 햇빛 달빛을 가리킴. ○ 光彩: 여기서는 얼굴빛이 좋음을 나타냄.

구절에서는 쉽게 늙어가는 인생을 한탄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갑자기 이룡을 등장 시키며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는 낭만적인 표현을 구사하였다.

清代의 朱昆과 沈寅이 補輯한 《李詩直解》에서는 “이것은 인생을 달관하고 신선을 배운 자의 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황하가 동으로 흐르고 하얀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흐르는 세월은 밤낮을 쉬지 않고 빨리 지나간다. 청춘의 모습과 안색은 순식간에 꺾이고 저버리니, 낙락장송이 사시사철 내내 시들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다. 스스로 신선의 단약을 만들어 이룡을 타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해와 달의 정화를 들이마셔 낮빛이 늙는 것을 멈추게 하여 신선이 될 수 있으랴!(此達生而學仙者之詩也。謂黃河東走，白日西落，流光迅速，不舍晝夜矣。青春容色，倏忽摧謝。不如長松貫四時而不凋易也。自非鍊仙丹以駕雲螭，安能吸日月之精華，駐顏色而爲仙哉。)”라고 하였다.

제11수 松柏本孤直

松柏本孤直,³⁸⁾ 송백은 본래 고고하며 곧은 지라,
 難爲桃李顏.³⁹⁾ 도리 같은 얼굴하기 어렵네.
 昭昭嚴子陵⁴⁰⁾, 고결하여 환히 빛나는 엄자릉은
 垂釣滄波間. 푸른 물결에 낚싯대 드리웠네.
 身將客星隱,⁴¹⁾ 몸은 나그네 별과 은거하고,

38) 孤直: 松柏 등의 자태가 빼어나고 곧음을 형용.

39) 桃李顏: 도리 같은 얼굴로 아첨하며 다른 사람에게 영합함.

40) 昭昭: 고결한 인품과 곧은 절개가 환하게 빛나는 모양. ○ 嚴子陵: 이름은 嚴光, 자는 子陵으로 浙江 會稽 餘姚(지금의 寧波 慈溪市)사람이다. 엄광은 어려서 劉秀의 동창이었는데, 유수가 등극하여 光武帝가 되자 이름과 성을 바꾸고 숨어 지냈다. 광무제가 여러 차례 그를 불러 벼슬을 주려고 하였지만 거절하고 富春江 부근에서 낚시하고 농사지으며 은거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41) 將: 함께, 더불어. '與'와 같음. ○ 客星: 손님처럼 하늘에 갑자기 나타나서 서서히 사라지는 별이라는 의미. 엄광을 의미함.《後漢書·嚴光傳》: ……(광무제와) 함께 드러누웠기 때문에 엄광의 발이 광무제 배위에 올려졌다. 다음 날 태사가 아뢰기를, 客星이 御座를 침범함이 매우 급박했다고 하였다. 광무제가 웃으며 '짐의 옛 친구 엄자릉과 함께 누웠을

心與浮雲閑. 마음은 뜬 구름과 한가로이 노니네.
 長揖萬乘君, 임금님께 장읍하고
 還歸富春山. 부춘산으로 돌아갔네.
 淸風灑六合,⁴²⁾ 맑은 바람이 천지를 씻어내는 듯하니,
 邈然不可攀. 아득하여 오를 수 없네.
 使我長歎息, 나를 길이 탄식케 하니,
 冥栖巖石間,⁴³⁾ 바위틈에 깊이 숨어 살려네.

< 詳析 >

송백은 본래부터 고고하며 곧은 품성 지녔기에, 도리 같은 얼굴 표정으로 권세에 영합하는 짓일랑 못한다.

고결한 성품과 곧은 절개가 환히 빛나던 엄자룡은 푸른 물결에 뉘싯대 드리우며 은거했다.

몸은 나그네 별과 은거했고, 마음은 뜬 구름과 한가로이 노닐었다.

임금님께 장읍하고 관직을 사양하며 부춘산으로 돌아갔다.

그 고결함은 맑은 바람이 천지를 씻어내듯이 하니, 아득하여 오를 수 없다.

이에 나를 길이 탄식케 하니, 나도 것처럼 바위틈에 은거하려고 한다.

< 解說 >

이 시는 詠史詩로 엄자룡을 빌어 시인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시인은 엄자룡이 권세에 영합하지 않고 자유와 방달을 추구한 것을 노래하여 자신이 고개 숙이고 허리 굽혀 권세에 아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이 시의 제1, 2구 “송백은 본래 고고하며 곧은 지라, 도리 같은 얼굴하기 어렵네”는 ‘興’으로써 “경물에 기탁하여 뜻을 말하는(托物言志)” 수법을 사용하였

뿐이다”라고 하였다(……因共偃臥, 光以足加帝腹上, 明日太史奏, 客星犯御座甚急, 帝笑曰: ‘朕故人嚴子陵共臥耳’).

42) 淸風: 맑은 바람. 엄자룡의 고상한 정신을 비유함. ○ 灑(쇄): ‘灑掃’의 의미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쓸고 닦음. ○ 六合: 천하.

43) 冥栖(명서): 은거하다.

다. ‘松柏’은 시인이 추구하는 고결한 정신세계, ‘도리’는 영예를 다투는 소인배를 나타낸다. 그러나 《唐宋詩醇》에서는 “첫 구는 《荀子》를 근거로 하여 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엄우가 말한 바 ‘문을 여니 산이 보인다’는 것(起句本之《荀子》, 直揭本指, 嚴羽所謂‘開門見山’者)”이라고 하였다. “고결하여 환하게 빛나는 엄자릉은”에서 “부춘산으로 돌아갔네”까지 6구는 《後漢書·嚴光傳》의 역사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엄광의 역사사실을 論贊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빌어 자신의 뜻을 기탁하였다. 때문에 沈德潛은 《唐詩別裁》에서 “의론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이는 영고시의 하나의 체제이다(不著議論, 詠古一體)”고 하였다.

“몸은 나그네 별과 은거하고”의 ‘나그네 별(客星)’은 쌍관어로 표면적으로 엄자릉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나그네 별’처럼 집착과 구속을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을 나타낸다.

3. 결론

이백의 <古風> 59수 가운데 제6수부터 제11수까지 모두 6편을 逐句 번역하고 註釋을 달았으며, 본문에 이어서 校記, 詳釋, 解釋을 붙였다. <古風> 59수는 일시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지은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제와 구성이 다양하다. 편년을 추측할 수 있는 작품을 보면 이백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제재로 지었음을 알 수 있으며, 때문에 주제도 다양하다. 때로 시 전체가 하나의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표면적인 의미 아래 있는 구체적인 함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古風>은 유선시, 영사시, 영회시, 변새시 등을 포괄하는데, 이번에 역해한 제6수부터 제11수까지의 작품도 대략 이들 범주에 들어간다. 때로 전통적인 비유의 작법에 따라 민감한 언어로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는가 하면, 때로 이상과 열정에 찬 뜨거운 언어로 정감을

일으킨다. 이들 시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백의 이상에 대한 열정, 유선에 대한 열망,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들을 수 있다.

< 參考文獻 >

-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蕭士贇,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王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瞿蛻園·朱金城,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詹福瑞·劉崇德·葛景春,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郁賢皓, 《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教育出版社, 1995.
 郁賢皓, <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 《中國文學研究》, 1989年 4期, 1989.
 張明非, <試論李白'古風'>, 《廣西師範大學學報》, 1985年 4期, 1985.

< 中文提要 >

本文選詩六首, 李白<古風>五十九首中的第六首到第十一首, 力求詳細剖析李詩的神理, 用準確的韓文來翻譯, 使人領略李白詩歌的主要風貌。在注釋和翻譯過程中, 曾參考和吸收了前人和今人的不少研究成果。每首詩都有原文和翻譯文、訓釋詞語和典故、校記、詳釋、說明等的體系, 一些歷代名家的評箋以及今人的新的看法也收錄在說明中。<古風>五十九首非一時一地之作, 所以在主題和作品結構審美上呈現出多樣性的特點, 有時很難確定具體的寫作時期。<古風>五十九首網羅遊仙詩、詠史詩、詠懷詩、邊塞詩等傳統體裁, 有首詩用全篇比體來表達主旨, 或抨擊現實政治社會的矛盾, 或追求向往理想的情感。本文選詩六首也如此。從中我們可以看到李白的精神歷程。

關鍵詞: 李白、古風、〈古風〉五十九首、譯註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30.	2013. 11. 12.	2013. 11. 22.	2013. 11. 26.	2013. 11. 30.